충청남도	농어업 관련 신문 주간 모니터링	2017. 1. 23. ~ 1. 29.
	◆ 팀장 : 행정5급 길병성 (4002) / 담당자 : 행정7급 김상현 (2512) ◆ 도정과제 「실무과제」 중 "3농혁신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·운영"과 연계	농업정책과

❖ 당진 시래기 공동생산…생산량 4배 껑충[한국농어민 1.24]



○ 당진 송산농협-새마을협의회, 1㎏ 2000상자 재배

❖ 홍성군, 농축산품 무인판매대 개장[한국농어민 1.27]



○ 연간 365일 1일 24시간 무인으로 작동

○ 상품 변경 및 재고 관리가 용이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

□ 주요 쟁점 & 이슈

○ "농산업분야 필요 인력 61만명…충원 방안 시급"(한국농어민 1.27)

- 향후 필요한 인력 2018년까지 61만명, 2023년까지 116만명 수준
- 농산업체 주도 산학협력 교육 강화해 청년고용 활성화
- 농식품부 내 통합 농산업인력 전담조직 구성 서둘러야

○ 지난해 1인당 연간 쌀소비량 '61.9㎏ 사상최저'(한국농어민 1.27)

- 30년 전 대비 '반토막'

○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4년 만에 늘었다…지난해 7만9479ha(한국농어민 1.27)

- 전년대비 5.8% ↑, 농가수는 6만1946호로 3.2% 증가
- 쌀 전체 면적의 64.5%, 밀 551ha·양배추 271ha 늘어
- 전남이 50.3%로 절반 이상 차지, 전북·충남도 뒤이어

○ 4년 연속 목표미달…올해 100억 달러서 70억 달러로 낮춰(농민신문 1.27)

- '윗선 눈치' 때문에 구체적 달성 방안 없이 무리한 설정
- 지난해 64억7000만 달러…목표치 달성률 79.8% 그쳐

○ 하늘에서 농사 짓는다…'농업용 드론'보급 활성화 과제(농민신문 1.27)

- 개별농가 사용 까다로워…초경량 비행장치 면허 필요
- 3주간 의무교육 필요…비용도 최대 400만원 들어
- 국토부 등 여러곳서 업무…하향풍에 약해 일부 '방제효과 의문' 제기

○ 일부 지자체서 조례제정 추진 중인 '최저가격보장제'는(한국농어민 1.25)

- 농민단체·농가, 도입 목소리…수급조절 기능 약해
- 농업보조총액(AMS) 초과 우려…정부는 난색
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4년 만에 반등(농수축산 1.25)

- 농식품부, 가공-외식-체험과의 연계 강화·온라인몰 등 판로확대

○ 농촌 결혼이민여성 '농업자금 지원·리더교육 가장 필요' 응답(농축유통 1.23)

- 농촌진흥청,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리더역량 조사결과 발표

□ 정책동향

○ 벼 아닌 작물 심어도 '쌀 직불금' 준다(농민신문 1.27)

- 농식품부, '생산 비연계' 방식 개편 추진…타작물 재배시에도 변동직불금 지급
- 전업농 수입보장보험 전환 검토도

○ 농식품부...대도시에 지역농산물 직매장 설치 지원(식량닷컴 1.25)

- 1개소 선정해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…2021년까지 7개소 설치 예정

□ 기관동향

❖ 농촌 오지마을 '작은목욕탕' 인기[농민신문 1.27]

[전북 순창군 팔덕면 작은목욕탕]



○ 집에서 가깝고 이용료 저렴, 주민 반응 좋아…3일 이용자 200명 이상

○ 지자체, 운영적자 고심…정부 예산 지원 촉구

○ 고령자·장애인 보험 등 안전대책도 마련해야

○ 서울시, 귀농교육시 비용 60% 지원(농업인신문 1.26)

- 농촌에 장기간 머물며 영농교육을 받을 50여 가구 모집
- 충북 제천, 경북 영주, 전남 구례·강진에서 교육 및 거주

□ 지역동향

○ 충남도,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54억 투입(한국농어민 1.27)

- 올해 처리 대상은 15개 시·군 1600동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
-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시·군 및 읍·면사무소에

○ 금산군, 지력증진 고품질 인삼생산(한국농어민 1.27)

- 1농가당 지원한도 내 총 151ha의 인삼재배 예정지에 양질의 객토 지원